

대학의 발전 방향과 대교협의 역할



이 군 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대교협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본다. 특히 대학 평가 사업의 수행과 각종 대학 현안의 해결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교협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과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한국 대학의 사명과 역할을 고려할 때, 대교협을 비롯한 고등교육 관련 기관들이 담당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 방향과 결부시켜 대교협의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념적으로는 대학의 생명과도 같은 학문의 자유를 구현하는 데 미흡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외국 대학과의 경쟁구조 속에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상으로는 대학간 불공정 경쟁과 대학 자율의 부족, 그리고 정부 당국의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각종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내부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참여민주주의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BK21 사업으로 인한 대학 서열구조의 심화, 교수 계약제·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교수들의 신분 불안 증가, 실효성이 미약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기초학문 분야의 육성 대책 미흡,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대비 소홀 등 대학정책의 문제점 및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 등 대학시장 개방 추세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내적·외적 운영구조상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고등인력의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 설정 및 과제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대학의 자율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대학은 무엇보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경쟁 및 다양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은 광복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료행정의 틀 속에 있어 왔다. 이제 대학은 질적 성장을 위한 조건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대학 인사, 학사, 재정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불필요한 규제들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교협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및 현실적 문제해결에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정부의 과도하고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회원 대학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대학정책의 결정과정에 그 구성원들의 의견과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대학 또는 집단에 편중됨이 없이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총은 교수 계약제·연봉제의 비합리적 요소 개선, BK21 사업 개선 촉구, 사립대학 교원의 교권침해 구제 활동, 대학교원의 교직수당 신설 및 연구보조비 인상, 법정 교원 수와 연구 시설 및 설비 확충,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대학 교원의 신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므로 대교협과 한국교총이 대학 교원의 권익 향상과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대학의 특성화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설립별·지역별·유형별 기능 분화 및 특화, 그리고 자율경쟁을 통한 다양성 강화의 방향에서 대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대교협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및
현실적 문제해결에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 발전을 이룩하는 데
대교협의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한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시장 개방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교협은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학 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기에는 대학의 운영구조 개편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대학의 외국 대학과의 교류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의 연구와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은 관료행정의 병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될 때 대학의 이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교협은 회원 대학은 물론 한국 대학의 운영구조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교협이 대학 운영의 효율화 및 민주화를 선도해 가야 할 것이다.

대학이 개혁되어야만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국가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 확립,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대학 운영시스템의 효율화 및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 발전을 이룩하는 데 대교협의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아울러 많은 대학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교총도 대교협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학문적 발전, 대학 교원의 신분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근현**

이근현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실장, 과학영재교육 연구소장, 중도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